

京城鍾路二丁目九一番地

朝鮮主日 聯合會

# 한글

號八第·卷二第  
【號月一十】  
1934

一 部 一  
錢五 金 月 個  
錢十三 金 年 一  
錢五十五 金 年 一

所行發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替版

넘기년일제행실안일통법춤마글한

## 號說解안일통법춤마글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발표가 이제 한문을 맞  
게 되었다. 이 통일안이 세상에 한번 나오자,  
전사회가 이에 대한 지지가 열렬하였고, 각종 인  
쇄물이 거의 다 이를 실행하기에 급급함을 본  
다. 우리가 오늘을 당하여 지난 일년간에 한글  
마춤법이 상상 이상으로 이렇듯 발달되어감을 보  
매, 이 앞으로 한글 통일의 성공의 희망이 무척  
(目睫)에 있을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우리글을 씀에 대하여  
너무도 표준이 없었고, 또 글(文字)에 대한 교  
양이 도무지 없었지라, 그러하므로 이 통일안  
을 일조에 실행하게 되는 때는 다소의 불편을 느  
낄것은 면하지 못할 일이다. 이는 단순히 통일  
안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선입주견이 깊은 자  
기 종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에 말미암음이  
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각처에서 이 통일안을  
얼른 보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그  
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감을  
본다.

그러므로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실행 제일  
년의 기념으로, 통일안 원문에 약간의 해석을 붙  
이여,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해석호를 내게 되  
는 것이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

#### — 制定의 概略 —

一九二〇年 十二月 十三日 朝鮮語學  
會 總會에서 選定된 맞춤법 制定委員  
權憲奎、金允經、朴顯植、申明均、李  
克魯、李秉岐、李允宰、李熙升、張志  
暎、鄭烈模、鄭寅燮、崔鉉培等 十二  
人이 二個年 동안 審議하여, 一九三二  
年 十二月에 이르러 맞춤법 草案을  
作成하였다. 그리고 또 金善琪、李鉉  
李萬珪、李常春、李世楨、李鐸等 六人  
의 委員을 增選하여 모두 十八人의  
委員으로써 開城 高麗青年會에서 一  
九三二年 十二月 二十五일부터 一九  
三三年 一月 四일까지 그 草案을 逐  
條 討議하여 第一讀讀를 마쳤다.  
이것이 또 修正委員의 손을 거치  
어, 一九三三年 七月 二十五일부터 八  
月 三日까지 高陽郡 華溪寺에서 討  
議하여 第二讀讀를 마쳤다.  
最後로 整理委員 權憲奎、金善琪、  
金允經、申明均、李克魯、李允宰、李  
熙昇、鄭寅燮、崔鉉培等 九人의 最終  
整理를 마치고, 同 十月 十九日 朝  
鮮語學會의 臨時總會에서 이를 採擇  
한다는 決議를 얻고, 同 十月 二十  
九日에 이를 全社會에 發表하였다.  
이 統一案이 前後 三個年의 時日  
을 걸쳐서, 四百 三十三時間에 一百  
二十五回의 會議로써 겨우 完成된  
것이다. 이것이 단단히 우리의 努力의  
結晶인것을 말할뿐이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 目次

總論	(2)
第一章 字母	(2)
第一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2)
第二節 字母의 이름	(2)
第二章 聲音에 關한것	(3)
第一節 된소리	(3)
第二節 舌側音	(3)
第三節 口蓋音化	(3)
第四節 ㄷ 받침 소리	(5)
第三章 文法에 關한것	(5)
第一節 體言과 토	(5)
第二節 語幹과 語尾	(6)
第三節 規則 用言	(7)
第四節 變格 用言	(7)
第五節 바침	(9)
第六節 語源 表示	(10)
第七節 品詞 合成	(13)
第八節 原詞外 接頭辭	(14)
第四章 漢字語	(14)
第一節 홀소리만을 變記할것	(15)
第二節 닿소리만을 變記할것	(16)
第三節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變記할것	(18)
第四節 俗音	(18)
第五節 略語	(19)
第六節 外來語 表記	(21)
第七節 ㅁ이 쓰기	(21)
附錄	(21)
一、標準語	(21)
一、文章符號	(23)
◆ 解說을 쓴이는 아래와 같다.	
總論 및 第一章 字母	李允宰
第二章 聲音에 關한것	李熙昇
第三章 文法에 關한것	崔鉉培
第四章 漢字語	金允經
第五章、第六章、第七章、附錄	李克魯
그리고 中間中間이 編輯者도서 解說을 多少 補充함이 있다.	







第二章 聲音에 關한 것

第一節 된소리

第三項 한 單語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音節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音節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아빠	압바	어찌하다	엇지하다
오빠	올바	여쭙다	엇줍다
어깨	엇개	나부끼다	나붓기다
토키	톳기	아끼다	앗기다
새끼	셋기	부끄럽다	붓글엮다
깨끗하다	갯끗하다	거꾸루	것꾸루
어더하다	엇더하다		

【解說】 한 單語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音節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는 말의 意味는 한 單語를 이룬 두개 혹은 두개 以上の 音節이 각각 어더한 意味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아무 意味도 가지지 않은 音節이 모이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다. 가령

뒷간 나룻배 담뱃대

라 하면, 「뒤」와 「간」이라든지, 「나룻」과 「배」, 「담뱃」과 「대」는 서로 모이어서 한 單語를 이루면서도 또한 각각 獨立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 때의 人은 즉 「사」인 「이」되어서, 옷 말을 一律로 形容詞化시키는 職能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人自體도 一種의 意味를 가진다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아무리」 생각하여도 「뒤간」, 「나룻배」, 「담뱃대」라고 表記할수는 없다. 또 짓밟다, 짓바수다

의 「짓」이라는지  
의 「밟」이라는지  
의 「잇」이라는지  
의 「빚」이라는지

의 「잇수구」, 헛되다  
의 「헛」과 같은 말들은 그것이 비록 獨立한 一個 單語로는 쓰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각 一種의 副詞(어찌)와 같은 意味를 가지고 接頭語로 붙어서 쓰이므로 이 말들을 지밟다, 지뺏수다, 티뺏이다, 비뺏고, 허쓰구 허뜨다

라고는 도저히 쓸수 없다. 그러나 前記한 例에서 보인바

아빠, 어깨, 토끼, 어더하다  
等は 歷史的 表記法이 비록  
압바, 엇개, 톳기, 엇더하다

라고 되어 있으나, 그 「압」, 「엇」, 「톳」, 「엇」 등은 아무 獨立한 意味도 갖지 않았을뿐 아니라, 現代語의 發音 現象을 精密히 觀察할 때에는 分明히

아빠, 어깨, 토끼, 어더하다  
等으로 發音된다. 이것을 그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發音 觀察力이 不足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歷史的 表記法에 支

配된 觀念을 가지고 하는 주장일것이다. 이 項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現代語의 發音을 基臺로 삼아가지고 이와 같이 規定한 것이다.

第二節 舌側音

第四項 在來에 舌側音 ㄹ을 ㄹ니으로 적던것을 ㄹ니로 적기로 한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걸레	걸네	빨리	빨니
날린다	날닌다	얼든	얼는
홀려	홀너		

【解說】 「舌側音 ㄹ」이라는 말은 얼핏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英, 獨, 佛語等의 ㄹ과 같은 發音을 이룬다. 이 音을 낼 때의 口腔의 狀態가 舌端을 硬口蓋에 붙이고 그 兩側으로 空氣를 流出시키므로 舌側音이란 名稱이 생기게 된것이다. 그런데 從來로 이 音을 表記한 例를 보면, ㄹ아래 ㄹ을 쓰거나, ㄹ아래 ㄹ을 썼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걸네」는 그 發音이 Kine과 Kine가 될수 없으며, 「날린다」는 Nal-rinda와 Nal-linda가 될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이 習慣은 外國말 배우는대까지 미처서 初學者는 렌라쿠센(連絡船)을 「렌라쿠센」이라 하지 않고 「렐라쿠센」이라 發音하며, will not(원할)을 「윌랄」이라 發音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게 된다. 그러나 音理를 細密히 觀察하여보면 ㄹ 發音에 대하여 우리말로 表記할 경우에 ㄹ들을 거꾸 쓰는것이 가장 合理的인 이요 原音에 가장 가까운 表記法이라 하겠다.

第三節 口蓋音化

第五項 한글의 字母는 다 제 音價대로 發音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다」도 「도」도 「디」를 「자」저 조 주 지」로, 「라」도 「료」리」를 「차」초 추 치」로 發音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解說】 口蓋音이라는 意味는 調音機關의 다른 部分에서 發音이 되어야 할것이 그 先後音의 關係로 發音 位置를 變하여 口蓋(입천경)에서 發音되는 現象을 이룬다. 즉 「다」도 「도」도 「











例甲

곡이 골시  
밭이 바치  
꽃이 꽃에  
교체

【解說】

우리 文法에 體言이란 말을 아니 썼으면 좋겠으나, 이것이 다른 文法에서 의미의 허어진것이므로 아직 그대로 쓴다. 體言을 유리말로 임자시(主語)라 함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곧 한 월(文章) 가운데 임자가 되는 것이나, 주장으로 이름시(名詞)를 이름이다. 또는 언체든지 옷 말에 말리어(從屬되어) 쓰이는 것이다. 體言(임자시)과 토는 각각 獨立한 시(品詞)이다. 비록 現今의 習慣上 便宜에 따라 體言과 토는 띄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그 原形은 바꾸지 아니하여야 한다.

例語에

있는 말소리에 대하여 붙이어 말하였다. 「곡」은 골(谷)과 같은 말이나, 흔히 「곡」이라고 하는 때도 있으니, 그때에 이렇게 쓸 것이요, 또 등곡이라 할 때에는 분명히 「곡」으로 소리나니 의례히 그렇게 쓸 것이다. 「밭」을 「바치로」 소리나게 되는 것은 口蓋音化의 法則에 의지하여(第二章 第三節 第五項을 参照) 그렇게 發音할 수 있다. 「밭치」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꽃에」도 「꽃레」로 소리내는 일이 있으나, 이왕에 「꽃레」라 씌놓고 「꽃레」도 發音하던 그릇된 習慣으로 된 것이나, 마땅히 말소리를 矯正하여야 할 것이다. 「꽃에」라 말하여 조금도 알 아듣지 못할리가 없다.

第二節 語幹과 語尾

第八項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區別하여 적는다.

例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은 먹을  
할고 할가 할지

【解說】

用言이란 것도 體言과 같이 우리 文法

에 아니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用言은 우리 말로 풀이시(說明語)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니, 한 월(文章)의 뜻을 풀이하(說明하)는 것인데, 어형시(形容詞) 움직시(動詞)들을 이름이다. 풀이시에는 반듯이 語幹(줄기)과 語尾(시말)의區別이 있으니, 活用되지 않는 部分을 語幹이라 하고, 活用되는 部分을 語尾라 한다.

用言(풀이시)의 語幹(줄기)은 그 中心觀念을 나타내는 것이나, 固定하여 變하지 아니하는 實質的 部分이요, 語尾(시말)는 文法的 關係를 나타내는 것이나, 쓰임을 따라 여러가지로 바꾸어는 形式的 部分이다. 줄기와 시말이 합하여 한 날의 풀이시(用言)를 이루는 것이나, 그것은 각각 獨立한 시가 아니다. 이것이 커 體言과 토와의 關係와는 서로 다른 점이다. (前日에는 語尾도 토라 하였었으나, 語尾는 全然 獨立이 없는 것이나, 커 獨立한 한 시인 토와는 아주 다르다) 이와 같이 語幹과 語尾는 서로 합하여야만 비로소 한 날의 시(品詞)를 이루는 것이 되니, 마춤법으로서는 모두 區別하여 적는 것이 옳다. 이것을 안 갈라 적더라도 語幹과 語尾와의 文法的 關係는 說明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하면 語幹의 形이 固定하지 못하여서 그 內容과 形式이 서로 一致하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그 說明과 理解가 함께 不利하게 된다. 그러므로 語幹과 語尾는 區別하여 적기로 한 것이다. 또 이렇게 區別하여 적는 것은 우리 글의 적는 법의 歷史的 發展의 傾向과 一致한 것이다.

(附記)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語源이 分명한 것은 본 語幹과 語尾를 區別하여 적고, 그 語源이 分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 語幹과 語尾를 區別하여 적지 아니한

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1) 그 語源이 分명한 것

甲 乙  
넘어지다 너머지다  
들어지다 느러지다  
들어가다 드러가다  
출어지다 흐러지다

(2) 그 語源이 分명하지 아니한 것

甲 乙  
나라나다(顯) 날아나다  
부러지다(折) 불어지다  
불거지다(突出) 북어지다  
자빠지다(沛) 잦바지다  
쓰러지다(倒) 쓸어지다

【解說】

다음과 같은 (1), (2)의 말들은 이미 합하여 한 날의 날말(單語)이 된 것이나, 그 分析的 要素의 사이에서 특히 語幹과 語尾와를 꼭 區別하여야만 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만약 이런 말에서 그 語源이 分명한 것조차 語幹과 語尾와를 區別하여 적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직 單語 成立에 대한 觀念이 薄弱한 이들의 초천 社會에서는 도리어 混亂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그 語源이 分명한 것은 서로 갈라 적기로 하였다.

무론 여기에서 語源이 분명하고 아니함의區別은 무슨 絶對的 標準을 세울 수 없는 것이나, 자연히 얼마큼 曖昧한 느낌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예에서 넉넉히 이를 대략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다시 그 標準을 세우자면, 우의 말이 語尾 「다」를 붙이어서 풀이시(用言)의 原形이 되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그 語源이 똑똑한 것이다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語源이 똑똑하지 못한 것이다 치면 근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 例語에서 (1)의 넘다, 들다, 델다, 들다, 들다, 없다, 흘다, 다



合成語에서와 同一한 (비록 自動 他動의 다른  
은 있을지라도) 뜻으로 쓰이지마는, (2)의  
날다(顯), 붓다(突出), 볼다(折), 잦다 혹은 잸  
브다(沛), 쓸다(倒)

는 결코 그 合成語에서 뜻( 곧 括弧 안에  
漢字의 뜻)으로 쓰이지 아니한다. 이 중에서도  
맨끝의 「쓸다」만은 原意의 뜻을 가지고 쓰인  
다고 세월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거나  
간다면 語源의 明不明은 오로지 主觀的 見解  
의 問題가 되고 말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통일적으로 그와 같이 정하였다.

第三節 規則用言

第九項 다음과 같은 動詞는 그 語幹 하  
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뜻을 바꿀적  
에 소리가 變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  
니하고 다 그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甲  
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말기다	乙	맞기다	甲	낙기다	乙
꽃기다		조끼다	함기다	낙기다	
숫기다		소꾸다	돌우다	도두다	
갈리다		갈나다	닫히다	다치다	
걸리다		걸나다	잡히다	자피다	
먹이다		머기다	묻히다	무치다	
보이다		보히다			

【解說】 이것은 動詞(음주씨)의 줄기(語幹)에 도

움줄기(補助語幹)가 붙어서 그 뜻을 바꾸는 것  
들의 되는 법이다. 이 도움줄기(補助語幹)에는  
각각 一定한 獨立한 뜻의 띄어서 一定한 법  
에 의지하여 모든 動詞(음주씨)에 두루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소리가 변하는 아니하는  
언제든지 그 原形을 밝히어 적어야 할 것이다.

시집(使役)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줄기(補助

語幹) 「이, 기, 리, 구」가 붙는 경우.

말기다(使任), 돌우다(作高), 숫기다(使湧出),  
걸리다(使步行), 먹이다(使食之), 보이다(示),  
낙기다(使釣), 함기다(使甜之),

임음(被動)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줄기(補助語幹)  
「히, 기, 리」가 붙는 경우.

잡히다(被捉), 닫히다(被閉), 묻히다(被埋),  
꽃기다(被逐), 갈리다(被磨)

「보이다」 「함기다」가 임음(被動)이 될적에는 「보  
히다」 「함히다」로 되고, 「낙기다」가 임음이 될적에  
는 「낙기다」로 될것이로되, 本文의 例에는 이

런 점이 뜻뜻이 規定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대개 發音의 便宜를 따라, 그 시집(使役)의 形  
式과 같이 쓰고자 함이다.

第四節 變格用言

第一〇項 다음과 같은 變格 用言을 認定  
하고, 각각 그 特有한 變則을 좇아서 語  
幹과 語尾가 變함을 認定하고 變換대로 적  
는다.

【解說】 여기의 變格 用言(벗어난 풀이씨)이란

것은 普通의 大多數의 用言(풀이씨)과는 조금  
다른 特有의 變則에 의지하여 끝바꿈(活用)을  
하는 얼마의 用言(풀이씨)을 이듬이니, 그 變

則을 認定하고 그 變則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대체 變則을 認함은 어느 나라의 文法을 물

론하고 不可避의 言語事實에 基因한 것이니, 만  
약 이를 容認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글이 말

과 一致하지 아니하게 되어서 實際上 여러가  
지의 不便과 不利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

므로 前日에 이것을 認定하고 꼭 原則대로만  
적으려는 생각을 가진이가 더러 있었지만은,

금번에는 이 儼然한 言語事實을 認定함의 當

然함을 두루 작정한 것이다.

대체로 줄기(語幹)나 씨끝(語尾)이 변한대로  
곧 發音 그대로 적는 것이니까, 특별히 많은 說  
明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아래 각 例에 疑義를  
품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說明을 붙이고자 한다.

(一) 語幹의 끝 리이 리 비파 「오」 우에서  
주는 말

例(1) ~ 우에서

올다 우나 우니 갈다 기나 기니

(2) ~ 우에서

놀다 놀나다 갈다 잡니다

(3) ~ 우에서

놀다 노오니 갈다 가오니

【解說】 이는 리 벗어난 풀이씨(리 變格 用

言)이라 이른다. 「우에서 리이 아주 줄고  
한번도 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에서 아이」  
「운 아이」 「진 실」도 적을 것이요, 결코 「올는  
아이」 「올 아이」 「권 실」로 적을 것이 아니다.

(附記) 리 드 스 우에서도 주는 일이 있  
지마는 안 주는 것을 原則을 삼되, 尊敬의

「시」와 未來의 리 우에서는 도무지 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한다.

【解說】 리이 리 우에서 주는 일의 도무지  
없고, 「뜻사람」 「말사람」으로 적는 것이 법으  
로는 옳을 것이다. (두 리 가운데에 어떤씨(冠

形詞)처럼 다른 임자씨(體言) 우에 쓰일적에 취  
하는 一種의 語尾이다. 그러나 表記의 버릇과

便宜를 따라 本文과 같이 「뜻사람」 「말 사람  
으로 적기로 할 것이다.

(二) 語幹의 끝 사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질 적

例 잇다(續) 이어 이으니  
낫다(癒) 나아 나오니



【解說】 이것은 人 벗어난 풀이씨(人 變格 用言)이라 이른다. 이것을 歷史的 原因을 살펴보면, 人의 본디 △(半齒音)이던 것이다. 어떤 地方에서 「잇어 잇으니」 「벗어, 벗으니」라 말하는 데가 있으나, 그것의 표준말이 아니므로 취하지 아니한다.

(三) 語幹의 끝 ㅎ이 줄어질적

例 하얏다 하야니 하얀 하야면

【解說】 이것은 ㅎ 벗어난 풀이씨(ㅎ 變格 用言)이라 이른다. 이것은 「기배하다, 슬퍼하다」와 같이 「하야하다」라 할것에 「하」의 ㅎ만 줄어치 되말이나, 마땅히 ㅎ바침을 쓸것이다.

(四) 語幹의 끝 ㄷ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ㄴ으로 變할적

例 들다(聞) 들어 들으니  
묻다(問) 물어 물으니

【解說】 이것은 ㄷ 벗어난 풀이씨(ㄷ 變格 用言)이라 이른다. 여기에 든 「들다」 「묻다」 「마위를 뜻다」 「묻다」로 하여치 그 人의 ㄴ으로 바꾸어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들다」 「묻다」로 하여치 그 ㄷ이 ㄴ으로 바뀌어는 것이라 하였음의 까닭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ㄷ과 ㄴ은 訓民正音에 이를 ㅈ음이니(거기서도 ㄴ은 半ㅈ音이라 하였으니, ㄷ과 ㄴ이 아주 서로 같음이라 하나), 그 소리는나는 자리가 서로 가깝기때문에 ㄷ이 ㄴ으로 바뀌었다 함은 가장 이치에 가까운 일이다.

(2) 理論上으로만 아니라, 소리의 實際를 볼지라도, 이런 말 가운데에 도무지 ㄴ으로 바꾸어지지 않고 항상 ㄷ으로만 나는 地方이 있나니, 이를러면 平安道 地方에서 「들다, 물으니, 물어」로 말함과 같은 것이다.

(3) 그뿐아니라, 조선말에는 같은 뜻의 말이 ㄴ과 ㄷ의 두가지로 된것이 적지 아니하니, 이를러면 ㄷ, 아다, 1도다, 1더라, 1더니, 차레(次第), 1굴(坑), 바다, 1리, 1로다, 1러라, 1러니, 차레, 1굴(窟), 1바라(海의 古語)와 같은따위이다. ㄷ이 ㄴ으로 바뀌어는 西洋말에서도 있는 일이다.

(4) (一)의 語幹의 끝 人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지는 말들(잇다, 낫다)은 말본 語法(動詞)란 이름으로 한 種類를 세워야 하겠는데, 이케 만약 「들다」, 「묻다」도 한다면, 이것도 또한 같은 이름의 種類를 세워야 하겠으리라, 言語 整理上에도 매우 不便하게 됨을 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들다」 「묻다」로 하여치 이따위를 ㄷ 벗어난 끝바꿈 음측씨(ㄷ 變格 活用 動詞)라 함이 가장 合理的이 된다.

(5) 더구나 그 바침의 ㄴ으로 變하지 아니하는 경우 「들다, 물고, 물다가, 물지...」에서도 그 바침은 人으로 난것이 아니라 「으로」 난것이다. 그러한즉 發音의 實際에 있어치도 한번도 人으로 난 일이 없다. 그러한즉 ㄷ바침으로 함의 音理上에서도 조금도 틀린 일이 없다.

(五) 語幹의 끝 비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우」나 「오」로 變할적

例 돕다(助) 도와 도우니 돕다(妍) 도와 고우니  
눕다(臥) 누워 누우니 눕다(寒) 추워 추우니

【解說】 이것은 비 벗어난 풀이씨(비 變格 用言)이라 이른다. 이것은 비이 「우」도 바꾸어는 경우이니, 「도와」 「고와」로 되어 하겠지마는, 이러한 새 글자를 만듦은 現在의 慣習에 너무 外를졌으므로, 本文과 같이 「도와」 「고와」로 쓰기로 한것이다. 이것이 본디는 ㅁ(唇輕音)

이던것이다. 어떤 地方에서 「ㅁ와」 「ㅁ어」 「ㅁ어」라 말하는 데가 있으나, 이것이 표준말이 아니므로 취하지 아니한다.

(六) 語尾 「아」나 「었」으로 날적

例 하다 하며 하되도 하였으니 하였다

【附記】 「하야」의 경우 하나만은 또한 「야」도 認定한다. (甲形은 認定하되, 乙形은 모 두 認定하지 아니한다)

例甲 乙

그리하여 하야도 하였으니 하았다

【說解】 이것은 「아」 벗어난 풀이씨(아 變格 用言)이라 이른다. ㅁ(語尾) 「아」와 도음줄기(補助語幹 「았」의 「하다」 따위 풀이씨(하다類 用言)에서 「야」 「았」과 「어」 「였」의 두가지로 쓰이는 극히 一般的 事實이다. 통일안에서 이것을 「어」와 「였」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야」 하나만은 許容하기로 한것이다. 그렇지만 「야」로 비롯한 다른 ㅁ(語尾)例 하야도, 하이는, 하야야)은 許容하지 아니하기로 한것이다.

(七) (語尾) 「어」와 語幹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렸」으로 날적

例 이른다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解說】 이것은 「러」 벗어난 풀이씨(러 變格 用言)이라 이른다. 語法으로는 「이르러」라 함이 옳으나, 워낙 소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못 쓴다.

(八) 語幹의 끝 音節 「리」의 다음에 語尾 「어」와 語幹 아래에 오는 「었」이 ㄴ에 「가」 줄고 ㄴ이 ㄴ으로 날적

이러한 ㄴ에 「가」 줄고 ㄴ이 ㄴ으로 날적







를 불면서 共通으로 되는것은 바침을 달아 쓸 수 있는것이요, 그렇지 않는것은 다 變格 用言으로 認하여 그 소리나는대로 쓸것이다. 곧 「을이다(登), 앓이다(痛), 슬이다」도 쓰는 絶對로 옳지 못하다.

이 모든 바침 가운데서 바침과 드 바침이 서로 混用되는것으로, 그것은 使用 範圍의 넓은것과 歷史的 原因을 살펴서 그리 處理된것이다. 여기에 깊은 注意를 가지어 混同되는 罪單이 없게 할것이다.

그런데 이 새 바침들 가운데에서 남들이 흔히 問題삼는것은 흥미리의 바침인것같다. 그러므로 여기에 몇마디 더 붙여 써서 그 誤解를 풀고자 한다.

흥바침을 反對하는 사람은 흥의 音理와 바침의 眞意를 正當히 깨치지 못하였거나, 現在의 自己를 標準하여서 배우기 어렵다고 보는 때문이나, 이는 여기서 장황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자세히 알고자 하는이은 다루 흥 바침에 關한 論文을 읽기를 바란다.

리, 미의 바침을 是非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으면, 그것은 이 바침의 音理的 乃至 語法的 不合理的을 論하기보다 차라리 標準語(대중말)을 달리 잠우의 옳다는 論인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오들의 示를달을 표준말로 삼고, 오들의 말을 표준말로 삼는 다음에는 이 리 미의 바침을 안 쓸수 없는것이라 한다.

또 특히 미 바침의 不可를 論하는이가 결핍하면 「프으, 프으, 프으, 프으, 프으, ……」가 보통으로 쓰이지마는 「따도」는 도무지 쓰이지 아니한즉, 이는 미 바침의 不可를 證示함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言語的 社會的 性質을 알지 못한 論이다. 대개 말이란 社會的 慣用으로 말미암아 成立發達하는것이므로, 꼭 같은 뜻이 있

마는, 甲의 경우에는 이 말을 쓰고, 乙의 경우에는 乙의 말을 쓰기도 하며, 한가지의 말이 라도 이렇게는 쓰이면서 이렇게는 쓰이지 아니하는 일이 적 많은것이다. 이를테면, 「아버님」 「어머님」 「누님」 「아우님」이 있으면서, 「언님」은 쓰이지 아니하며, 「달라(請求)」 「다오」만 쓰이고, 「달다」 「달다가」 「달아」 「달면」 「달지」…가 도무지 쓰이지 아니함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언니」와 「달라」가 다 말이 안 된다 하든지, 표준말이 안된다 하든지, 글을 잘못 썼나 하든지 함은 너무도 어림없는 誤謬가 될것이다. 그러므로 「남도」가 안 쓰인다고 해서, 「남이」 말이 안된다 할수는 없는것이다. 또 語源的으로 남의 남구 등에서 發源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語源이 「남구」이라고 해서 오들의 표준말도 「남구」이라고 한다 하는이가 있으나, 이는 言語의 發達과 變遷性을 도무지 理解하지 못한 소리에 지나지 못한것이다. 만약 이것을 無視한다면 古語로써 오들의 표준말을 삼아야 할것이니, 넓은 世界에 어디 이런 나라가 있을수가? 하물며 語源的 解釋이란 사람을 따라 區區不一한것이 예사인 즉, 語源的 見解로서 오들의 마음법의 표준을 삼고자 함은 危險千萬의 일이다.

또 한가지 注意할것은 여기에 「프」 「프」 「프」 들었음은 결코 「나무」 「구루」 구명 : 을全然 否認함이 아닌 일이다. 「남」보다 「나무」가 훨씬 더 正當한 표준말임이 물론이다. 다만 우리는 「나무」와 「남」의 複標準語를 두자 함의 不適當것이다. 만약 꼭 한가지의 표준말만 두기로 한다면, 「프」 「프」를 엄새버릴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第六節 語源 表示

第一二項 語幹에 「이」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되고, 「음」이 붙어서 名詞로 轉成할적에는 口蓋音化의 有無를 勿論하고 그 語幹이 變하지 아니한다.

例 「이」의 별이 얼음 웃음 절음 미단이 개구멍반이 쇠붙이 굳이 같이

【解說】 語源은 通則的인 一般의인것만을 表示하기로써 原則을 삼았다. 그래서 여기의 「음」과 「이」는 通則的 乃至 一般의인것이니까, 그 것이 붙는 語幹과 그것을 다 原形을 바꾸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第一三項 語幹에 「이」나 「음」以外的 소리 가 붙어서 他詞로 轉成할적에는 그 語幹의 原形을 밝혀서 적지 아니한다.

例 「대개」 주검 무덤 을개미 귀머거리 나무 비로소

【解說】 「이」 「음」 밖의것들은 通則的 一般的인것이 아니니까, 그 語源을 나라별 必要가 없 다. 이에 대하여 어떤이 「죽음」 「물음」이 그 語源을 表示하면서 「주검」 「무덤」은 왜 語源 表示를 하지 아니하는냐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렇다 「죽음」(死)과 「주검」(屍)과의 사이에는 「죽」으로써 본다면 그 상거가 그리 멀지 아니하다 할만하다. 그러나 「음」과 「프」는 語法的으로 보아도 差違가 매우 멀다. 「음」의 通則的의것이요, 「프」는 결코 通則的의것이 못된다. 그러니까 「음」과 「프」의 關係를 表示하지 아니한것이다. 만약 이런마의도 語源을 表示한다면, 「마개」는 「막아」로, 「노래」는 「놀아」로, 「나무」는 「남우」로, 「비로소」는 「비로오」로, 「을개미」는 「을암이」로 적어야 할것이요, 이렇게

나아간다면 모든 語源은 될수있는데로 말미암아 表示하여야만 될것이니, 그리 되면 마춤







임이 原則이다。그러니까, 그 줄기와 「하」나 「후」의 原形을 밝히어 적어야 表音文字의 表意化에 매우 有利한것이 된다。여기에 「호하다」라 하지 않고 「호이다」로 한것은 다만 便宜의處理이다。

第二〇項 語源的 語幹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轉成될적에는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조차 부러 마저

【解說】 이것을 語源的 關係를 嚴格히 따진다 면, 「꽃아」 「불어」 「맛아」로 쓰겠으나, 이미 그 것이 토로 化하여 한낱의 單 詞의 말로 이 든것이기때문에 그 原形을 밝힐 必要가 없는 것이다。

第二二項 「하다」가 붙어서 되는 用言의 語源的 語根에 「히」나 「이」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가 될적에는 그 語源을 밝히어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답답히 답답피 반듯이 반드시  
답답이 답답비 반듯반듯이 반듯반드시  
공공이 공공피

【附記】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語源的 語根에 「히」나 「이」나 또는 다른 소리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로 될적에는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군더더기 오라기

【解說】 이런것들에서는 原語根의 獨自的 存在가 매우 特異할뿐더러, 이름(名詞)나 어찌(副詞)의 끝소리로서의 「히」나 「이」의 獨自性도 또한 뚜렷하므로, 이를 각각 原形대로 밝히어 적음이 便利할것이며, 또 現在의 意義으로 보아서도 便利한것이다。

그러나 「군더더기」 「오라기」 「모름지기」 「따위」는 그리할 必要가 없다。

第二二項 語源的 語根에 「하다」가 붙어서 用言이 된 말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例 착하다 딱하다 급하다 속하다

【解說】 「착하다」 「딱하다」는 語源의 그리 特異하지 못한것이로되, 「차카다」 「따카다」는 아무 리하여도 失투려 보인다. 그래서 在來의 積는 버릇으로 「급하다」 「속하다」 「따위와 같이 處理함이 도리어 便利하다 한것이다。

第二三項 動詞의 語幹에 「이」 「히」 「기」가 붙을적에 語幹의 끝 音節의 홀소리가 그 소리들 疊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먹이다 먹이다 먹히다 먹히다  
박이다 백이다 말기다 말기다  
속이다 속이다 벗기다 벗기다  
죽이다 죽이다 쫓기다 쫓기다  
뜨이다 띄이다 숨기다 숨기다  
잡히다 잡히다 뜯기다 뜯기다

【附記】 이 境遇에 들이 合하여 아주 單音節로만 나는것은 소리대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例甲 乙 丙  
내다 내이다 나이다  
깨다 깨이다 까이다  
재다 재이다 자이다

【解說】 원래 글이란것은 아무리 소리로 된 글임지라도, 그 實際에 말을 적는 마침(綴字)은 결코 꼭 소리나는 그대로 적는것은 아니다。(이는 매우 重要한 原理이다)。그러므로 그 實

際의 소리남(發音)에서는 아무리 乙과 같이 난다 하더라도, 글조차 그리 적을수는 없는것이 다。그러므로 本文과 같이 規定한것이다。

第二四項 擬聲 擬態의 副詞나 「하다」가 붙어서 用言이 아니 되는 語根 아래에 「이」 「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될적에는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기러기 피피리 배꾸기 다짜꾸리 귀뚜라미 개구리 코끼리 가마귀 살사리 더퍼리 뻐꾸기 얼룩기 떠버리

【解說】 이런마의를 만약 그 擬聲 擬態의 語源을 찾아 나타내기로 함은 다만 조그마한 語源 闡明의 知的 興味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多층법으로 보아서는 매우 幼稚한것이 된다。

더구나 이런마위의 말에도 자꾸 그 語源을 찾아 쓰기로 한다면, 各個人의 主觀的 見解를 따라서, 실로 區區한 多층이 되고 말것이다。이를테면 「제비」도 「젠이」도, 「까치」도 「깎이」도, 「가마귀」도 「감악의」도 쓸수가 있을것이다。그러므로 도대체 이런것들은 모두 語源을 밝히지 아니함이 上策이다。그리고 「기력아」 「개굴아」의 「기력」 「개굴」은 「기러기」 「개구리」의 略(略된)것으로 보면 그만이다。

第二五項 語源的 語根에 「이다」가 붙어서 된 用言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움직이다 움직이다 번적이다 번적기다  
번들이다 번들기다

【解說】 이것은 「움직」 「번들」 「번적」의 單 詞처럼 되어, 가령 「움직움직」 「번들번들」 「번적번적」이라 할수 있고, 아래에 「이다」가 自動 詞처럼 되어 있어, 각기 各 各의 뜻을 나타내게 되







人」의 處理는 참칭가신 일이다. 만약 사이人을 그 나는데로 一이 적자면 참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이 案에서는 될수있는대로 그 사이人을 적게, 不得已한 경우에만 쓰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홀소리(母音) 아래에서 나는 사이人만은 적기로 하고, 닿소리(子音)와 닿소리의 사이에서 나는 사이人은 도무지 적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다. 「장군」(將軍)과 「장사군」(市人), 「문자」(文字, 熟語)와 「문사자」(文字)에서와 같이 사이人을 적지 아니할것 같으면 서로 混同될 念慮가 없지 아니한 말은 극히 그 數가 드물다. 이 두어 말 때문에 또 特例를 들 必要는 없다. 이 두어 말만은 사이人으로 區別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경우를 따라서 들림없이 區別될것이다. 그래서 닿소리 아래에서는 몰림어서 사이人을 적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다.

홀소리(母音) 아래에서 쓰기로한 사이人은 그 우의 홀소리(母音)에 받쳐져 적기로 하였다. 이 권에는 사이人은 도박도박 사이에 적는것(例 뒤스간)이 배사이였지마는, 이미 거듭하여서 한날의 씨를 이룬 以上에는 구대여 人으로 그 사이에 獨立한 單詞의 자리를 차지하게까지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거듭사이의 사이人의 구실을 생각한다면, 만약 人이 獨立的 意義를 주어서 본다면, 그것이 사이에 있어서 우의 말을 잇게 한것이라 할수도 있겠지마는, 또 만약 두 원 名詞를 가지고 본다면, 우의 名詞가 人을 얻어서 어면(冠形詞)같은 資格으로써 아래의 名詞와 接合한것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見解는 어떠한지간에, 人을 우의 홀소리(母音)의 받침으로 받치는것이 便利한것이 다. 어면이는 이리하면 根本부터 우의 名詞가 人받침으로 된것인지 아닌지가 不明하기때문에

「큰 混亂」이나 생길듯이 떠들지마는, 이는 그 지 反對하기 위한 너무 誇張한 杞憂에 지나지 아니한것이다. 「뒤스간」보다 「뒷간」이, 「또 다음 項의 「조남살」보다 「좁살」이 훨씬 便利한것임은 지을수 없는 事實이다.

第三二項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좁살	조남살	참살	차남살
멧살	메남살	헛살	해남살
수캐	송개	암개	암개
조팝	종밥	안팍	양팍

【解說】 이것은 무엇보다 쓰기 쉬운것을 취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것이 너무 쉽다고 해서 異議를 提出할이는 없을줄로 안다. 만약 語源의 으로만 적는다면, 乙과 같이 「조남살(조살) 해남살(해살) 송개……」로 적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듯이 그대야만 語源的 說明이 되는것이 아닌것도 없지 아니하다. 이를테면 「수캐」 「알개」 「조팝」은 「남이 우연히 거센소리(激音)로 냈다 하여도 조팝도 들림이 없을줄로 안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말에서 원래 「이던 것이 아무 까닭 없이 키으로 나는 임이 흔히 있기(例 감(劍) 칼, 고, 고, 갈치-갈치) 때 문이다.

第八節 原詞와 接頭辭

第三二項 接頭辭와 語根이 어울려서 한 單語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接變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짓이진다	짓나진다	엇나간다	언나간다
셋노랴다	센노랴다	싯누랴다	신누랴다

【解說】 接頭辭(머리가지)는 비록 獨立한 單詞의 資格은 없지만, 여러 경우에 두루쓰이는 一種의 獨自性을 가진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原形대로 적는것이 옳은것이다. (第六項의 說明을 參照)

第四章 漢字語

漢字音은 現在의 標準 發音을 쫓아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따라서 從來의 漢字 字典에 規定된 字音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解說】 普通의 常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에 대하여 異意가 없을줄로 생각한다. 그러나나 뜻밖에 漢文의 現行 字典의 音을 神聖不可犯으로 생각하는 漢文 崇拜에 中毒된분들중에서 反對의 意見을 가진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이 는 그들의 漢文音 變遷의 歷史에 어둡다는것과 自家矛盾을 증거할뿐이다.

訓民正音 時代(訓蒙字會 以前)에 出版된 책에는 漢文音이 전부 中國音 그대로 가령 國科, 乎嚮, 常尙, 談談, 字窓, 不露, 終窓, 便 變……

같이 쓰임이 분명한데, 訓蒙字會 때(中宗 二十二年)에 대단히 변하여서 가령 國科, 字스, 定聲, 便變…… 같이 변함도 있고, 壤尙, 人신, 蛾하

같이 그대로 남은것도 있고, 李니, 羸싱, 菁청, 君윤…… 같이 권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그 時代 獨

特한 音도 쓰임이 보인다. 또 그 뒤 華東正 音通釋韻考 때(英祖 二十三年)에 와서는 娥아, 棒방, 港강, 壤尙, 人신, 水취, 癸귀, 二











가지의 그릇 생각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곧

(一) 漢字音을 絶對로 변하지 못하겠다. 생 각함과

(二) 漢字를 아는이만을 표준하고 생각함과

(三) 漢文의 한자를 다 單語 같이 생각함 이 그것이다.

어느 나라 말이 어느 나라 말의 歸化되려 고 하면, 본디 가지고 있던 것으로 같지 아니 한 特性을 변함이 아니고는 歸化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즉 漢文의 말도 우리말의 歸化 되고서 하면, 반듯이 우리말의 發音法과 우리 말의 文法이 뜻지 않고는 도무지 歸化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데 漢字音이 우리말에 歸化됨에 당하여 漢字音을 못 고치겠다 하고, 도리어 우 리의 말의 發音을 고쳐서 漢字音대로 적자 하는 생각은 너무도 主客顛倒하는 그릇된 생각이다.

또 『여자』라 하다가 『남녀』라 적으면 같은 한 『女』가 『여』로도 되고 『녀』로도 되니, 옳 지 못하다 하는것은 漢文 『女』를 알고 있는 이의 생각이요, 조선말로만 배운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떠한것을 『여자』라 하고 어 떠오더한것을 『남녀』라 한다고 기외할뿐이지, 『녀』가 『여』와 같은 뜻을 가진 漢文에서 온 것이라는 語源은 語源學者 아닌 보통사람에게 는 아무 상관이 없는것이다. 또 『女』라 하는 漢文에서 오것음을 알더라도 『女』가 漢文에서 는 한 獨立한 單語가 되지마는, 우리말에서 는 한 單語가 끼어들어가기는 할지라도, 『녀』만으 로는 도무지 獨立한 單語로 쓰임이 없다. 만 일 漢文의 한자가 우리말에서도 한 單語로 쓰 인다면, 그때에는 그 소리를 들한가지로 적야 할것은 물론이다. 漢字音을 굳이 固執한다면, 『백동(白銅)』을 『백동』으로, 『사탕(砂糖)』을 『사

당』으로, 『한분(一分)』을 『한분』으로 적야 할 것이다. 漢字音에 이러한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理論은 이 아래의 같은 여러 경우에 대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第四三項 「라 러 료 류 리 레」의 字音이 頭 音으로 을적에는 「야 어 요 유 이 예」로 적 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史) 려사  
요리(料理) 료리  
이화(李花) 리화

乙

역사(歷史) 려사  
유수(流水) 류수  
예의(禮儀)례의

但 單語의 頭音 以外的 境遇에서 낱적에 는 그 發音을 따라 本音대로 적는다.

例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桃李) 행리(行李) 사례(謝禮) 혼례(婚禮)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어질량(良)

【解説】 우리말의 發音에 한 單語의 처음에서 는 ㄹ이 쓰임이 도무지 없다. 이는 우리말밖

아니라, 우랄·알타이語族 全體에 共通한 規則이 다. 일본말로 우랄·알타이語族이라고도, ㄹ(R) 첫 소리를 본디 내지 못하더니, 漢字音에서 침들 이어 배우어 쓰기 시작한것이 이키는 그 原 則이 깨어적가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Russia』 를 『オロシヤ』(Orusia)라 하였었다. (이제는 『로 시아』라 함) 조선서도 『아라사』(俄羅斯 Arusa) 라 하는것이다. 우리말로 이 다음에 ㄹ 첫소 리를 가진 외국말에 대하여 그대로 내게 변 하여질 때가 올지는 모르나, 그리될 때에는 물론 그대로 적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 의 發音에 ㄹ 첫소리를 아니 내니까, 불가불 이와 같이 處理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또 單語의 첫소리 밖의 경우에서는 그 發音 을 좇아 本音대로 적는다 하고, 『선량(善良)』 『협력(協力)』 『염료(染料)』 『행리(行李)』로 규 정함에 대하여 혹 이것들을 ㄹ 『선량』 『협 려』 『염료』 『행리』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함이 있 을는지 모르나, 여기에는 몇가지 까닭이 있 으니, 곧 하나는 이 規定대로 하여도 당소리 (子音) 接變의 例에 의지하여 그렇게 發音됨이 요, 하나는 너무 紊亂하게 됨을 피하여 다소 간前 習慣을 보존함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쓰는것이 表意化하는 편리가 있다는 까닭이다. 이 다음에 漢文은 오직 專門家만이 알게 되고 보통으로는 알지 못하게 될 때에는 물론 그 리되고 말것이다.

第四四項 「라 로 루 르 래 리」의 字音이 頭 音으로 을적에는 發音대로 「나 노 누 느 내 리」로 적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낙원(樂園) 락원  
누각(樓閣) 루각  
내일(來日) 래일

乙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룡묘  
뇌청(雷聲) 룡청

但 單語의 頭音 以外的 境遇에서는 本音 대로 적는다.

例

쾌락(快樂) 극락(極樂) 부모(父老) 연로(年老)  
고루(高樓) 옥루(玉樓) 구릉(丘陵) 영릉(英陵)  
기래(去來) 왕래(往來) 지뢰(地雷) 낙뢰(落雷)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적는다.

例 다락(樓)

【解説】 前項에는 ㄹ 첫소리가 나 나 가 번 커 합친 홀소리(ㄹ 나 가)를 만나면 ㄹ을 아주 아니 내는 경우를 처리하지마는, 여기 에는 ㄹ이 나 나 가 나 가 나 들을 만날 때 에 「ㄹ」으로 바꾸어 ㄹ을 處理한것이다. 그리 하나 이것도 ㄹ을 첫소리로 내지 못하기때문



에 나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또 첫소리 밖의 모든 경우에는 發音에 좇아서 本音대로 적는 까닭은 前項과 같다.

여기에 하나 붙이어 말할것은 큰이 다른 소리 밑에서 나는 경우에도 固有한 이름에 대하여는 接變을 認定할 필요가 없이 바로 發音대로 적음이 좋을가 한다. 가령 『최만리』(崔萬理) 같은 이름의 『만』과 『리』가 합하였다 하더라도 부르는 소리대로 『말리』(혹 『만나』)로 적을것이요, 『철라도』(全羅道)가 『진』과 『라』와 『도』의 漢字音으로 되었다라도 『진』이나 『라』에 무슨 뜻을 가진 각각 한 單語로 모음이 아닌즉, 單語表意化에도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漢字의 原音이라는 漢文神聖不可侵의 그릇된 생각으로 千萬 사람이 부르는 말의 소리가 『철라도』임에도 不拘하고 漢文을 먼저 배우고 『철라도』란 땅 이름이 『全羅道』란 字에서 이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만 듣고는 도무지 『진라도』라고 쓸리가 만무한 사람들에게 『진라도』라고 쓰게 하자 함은 아무 意味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고, 無限한 時間을 그러한것 배우기에 허비하게 하는 損失을 주는 것뿐이다. 漢文學자가 아닌 西洋 사람들이 『新羅』, 『鍾路』, 『李舜臣』, 『全羅道』같이 固有한 이름에 대한것을 死양극도로 쓸 때와 『신라』(Silla) 『중노』(Chong-no) 『이소신』(Yi Soon-sin)이라 쓰다 『신라』(Silla) 『중노』(Chong-no) 『리소신』(Ri Soon-sin)이라 쓰지 아니함을 보아도 漢文 모르고는 그리 쓸 사람이 없겠고, 또 漢文에 뜻을 알더라도, 조선사람 친척이 그대로 發音하지 아니하는것을 漢字音대로 쓰지 어리석음을 알 것이다. 將來에는 이러한 固有한 이름의 대하여서도 아니라, 보통의 말이 漢文에서 온 것에 대하여서도 전부 우리말의 發音대로 적

게 될것은 분명한 일이요, 자연한 일이며, 또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第三節 當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變記할것

第四五項 「덕도 두디데」의 字音은 「저 조주지제」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키담(低級)	디담	친담(田番)	던담
조수(鳥獸)	도슈	조정(調停)	도정
주광(難經)	두광	지구(地球)	디구
제자(弟子)	데즈	질랑(佚蕩)	딜랑

第四六項 「리도 류데」의 字音은 「처 초 추체」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천지(天地)	던디	철도(鐵道)	덜도
청중(聽衆)	렁중	초미(貂尾)	토티
축루(軀體)	투루	체재(體裁)	테재

【解説】 이 두項의 處理에 대하여 혹 本音을 내는 地方이 있다는 理由로 不平을 말하는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한 偏見이요 誤解이다. 어느 한 地方에서 假定으로 꼭 本音대로 낸다 하더라도, 본보기로 잡은 말이 그대로 되지 않고 變하였다 하면, 불가불 본보기 말대로 쓰야 할것은 물론이겠는데, 하물며 이러한 漢字音들이 本音대로 내는 地方이 없다. 표준말을 쓰는 地方에서 이것의 當소리(子音)와 홀소리(母音)를 다 變하여 냄에 대하여, 西道에서는 그 홀소리만을 變하여 냄이 差異가 있을 뿐이다. 가령 本音 「디담」(低級), 「던담」(田番), 「던디」(天地), 「렁중」(聽衆)을 표준말에서는 當소리와 홀소리를 다 變하여 「키담」, 「친담」,

『천지』, 『청중』이라 하는데, 西道에서는 『던담』, 『던디』, 『렁중』이라 한다. 그러한즉 어느 것이든지 本音과는 틀린것이다. 그리하면 어느 것을 좇겠느냐 하면, 물론 표준말의 發音대로 쓰자 할 것이다.

第四節 俗音

第四七項 現行 字典에 아무 俗音 規定이 없으며, 俗音 한가지로 읽는 字音은 그 發音을 따라 俗音대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취미(趣味)	츠티	인쇄(印刷)	인살
부모(父母)	부무		

【解説】 만일 이러한 말이라도 本音대로 적자 하는이가 있다 하면, 그는 마치 흐르는 물을 停止시키고 음측이는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려하는이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可能하다면, 東西 古今의 各 方言의 變遷史(時代時代 여러가지로 變하여 온 記錄)가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本音대로 읽는다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것을 어찌하겠는가?

第四八項 두 홀소리 사이에서 (1) 리이 리로만 나는것은 리로 적고, (2) 리이 리오로만 나는것은 리오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1)甲	乙	甲	乙
허락(許諾)	허낙	대노(大怒)	대노
회령(會寧)	회녕	(2)의논(議論)	의론

【解説】 漢字音 處理에 一貫한 標準은 우리말의 發音이라 함은 이 우에서 이미 말한바나, 여기에서 더 說明할 必要가 없을것이다. 本音의 리이 그대로 리오로만 나고 本音의 리이 그대로 리로만 나다면 別問題가 없겠지마는,







서 表意化하는 까닭이다.

「아가」가 줄어 「악」으로, 「기령기」가 줄어 「기령」으로, 「가지」가 줄어 「갓」으로, 「미치」가 줄어 「밋」으로, 「디디」가 줄어 「딘」으로, 「온가」가 줄어 「온갓」으로 이렇게 홀소리(母音) 하나하나가 순것임과, 「어케」가 줄어 「엇」으로 이렇게 홀소리 「케」가 순것임과, 「애꾸눈이」가 줄어 「애꾸눈」으로, 이렇게 「이」한개의 音節이 순것임을 기억할것이다.

第五三項 로만이나 또는 로와 名詞가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본말 준말 본말 준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너넌 너를 널  
무엇을 무엇엔 무엇을 무언  
그것은 그건 그것을 그걸

【解說】 이것은 다만 소리나는 그대로 쓸뿐이므로 說明할 必要가 없다.

第五四項 語幹의 끝 홀소리 「가」 「어」 소리를 만나서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예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건느어 건너 크어 커  
기쁜어 기뻐 크어 커  
크었다 컸다 기뻐었다 기뻐다

【解說】 이것은 音理의 관계되는것이니, 「가」와 「가」가 다 같이 혀의 가운데가 높으면 홀소리인데, 「가」가 「가」보다 혀가 더 높으면 소리가므로, 그 다음의 오는 「가」 소리로 발음되고만 것이다.

第五五項 홀소리로 끝난 語幹의 밑에 「이」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예(1)본말 준말  
뜨이다 띄다  
뜨이다 띄다

예(2)본말 준말  
쓰이다 쓰다  
쓰이다 쓰다

보이다 보다 건느이다 건너다  
(2)가아서 가서 부여 뵈

【解說】 예(1)에 「이」가 다른 홀소리(母音) 밑에서 잇달아 별책에 發音機關의 關係로 「와」 같이 되어서 한 새로운 소리를 이루는것이다.

예(2)에 같은 홀소리들이 만나면, 하나는 흔히 줄게 된다. 「와」 「가」 「와」로 되고 「와」 「가」 「워」로 되는것은 音理도 있고, 또 「와」 「워」 줄을 읽는 버릇이다. 「와」 「가」 「워」 되는것은 「가」 반홀소리(半母音)가 되어서 子音性을 띤 까닭이다.

第五六項 語幹의 끝 音節 「하」의 「가」 줄어질적에는 ㅎ을 中間에 놓기를 原則으로 하고, 또 우의 音節에 마침으로 씌도 許容한다.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도 許容하고 丙은 버린다)  
예본말 甲 乙 丙  
가하다 가하다 장다 가라  
부지럼하다 부지럼하다 부지럼다 부지럼라  
청결하다 청결하다 청결다 청결라  
다정하다 다정하다 다정다 다정라

【解說】 甲을 原則으로 한것은 「하」의 「가」 줄고 남은 「ㅎ」이니, 본래 「하」자리에 그냥 두는것이 「가」 줄었다는것을 나타내는 同時에 이 畧語로부터 생기는 띄 많은 ㅎ 마침을 달게 되어 위선은 印刷에 매우 편하게 된다. 남의 글의 예를 볼지라도, 줄은 글자의 자리에는 點을 찍어서라도 표하는것이 原則이다. 乙을 許容함은 ㅎ 마침을 쓰니 여기에도 쓰는것이 좋으며 表意化하는것으로 보아서 더욱 좋다.

第五七項 다음의 말들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甲을 取하

고 乙을 버린다)

예甲 乙 甲 乙  
결코 좋코 하마드면 하망드면

【解說】 이 말들은 한마디로 이루어진 어찌씨(副詞)이요, 다른 토들과 一般으로 活用되는 씨(品詞)가 아니다.

第五八項 「저 지 치」로 끝난 語幹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音節이 줄어질적에는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한다.

예본말 甲 乙  
오시어 오셔 오시어 오셔  
가지어 가쳐 가지어 가쳐  
치어 쳐 치어 쳐

【解說】 첫째 文法上으로 보면, 「오시」 「가지」 「치가」 語幹 그중 「시」는 補助語幹이요, 「어」가 語尾나, 이를 區別하여 적을 必要가 있고, 둘째 聲音學的으로 보면, 「시 지 치」의 「가」 「가」를 만나서 반홀소리(半母音)가 되어 「켜」 「쳐」가 되므로, 甲을 原則으로 한것이요, 「저 쳐 쳐」가 實際는 「저 처 처」도, 發音이 되므로 乙을 許容한것이다.  
그 發音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하면, 「저 처 처」가 「저 처 처」로 나는 까닭은, 「스」 「츠」 「치」 「혀」 앞임친장 摩擦音이요, 「어」 들어 있는 반홀소리인 「가」 또한 摩擦性을 가진 혀끝과 앞임친상 소리인데, 같은 자리에서 거의 같은 짓으로 나는 소리가 들이 잇달아 나게 되매, 하나는 音便上 철로 줄게 된것이다.

第五九項 複合名詞 사이에 있는 「의」의 「이」가 줄어지고 「가」 우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여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解說】 이것을 分析的으로 보면, 대단히 서늘



어 보이겠으니, 綜合的으로 한 이름씨(名詞)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별본체가 없다.

### 第六章 外來語 表記

第六〇項 外來語를 表記할적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 (一)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한다.
- (二) 表音主義를 取한다.

【解說】 다른 民族들의 말소리를 一般 사람에게 도저히 가르칠수도 없고, 또 가르칠 必要도 없다. 그러므로, 조선 文字만 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대로 가장 가깝게 적을뿐이요, 그 말의 綴字法을 돌보지 말 것이다.

外來語 表記法은 大體 案을 曼드는데중이므로, 여기에는 그 案의 精神만 보인것뿐이다.

### 第七章 띄어 쓰기

第六一項 單語는 각각 띄어쓰되, 또는 웃말에 붙여 쓴다.

- (一) 名詞와 動詞

例 (1) 사람이. 밤으로만.  
(2) 악아. 애꾸눈아.

- (二) 用言의 語幹과 語尾

例 (1) 가면서 노래한다. 먹어 보아라.  
(2) 갖고 밧고. 했으니.

- (三) 副詞와 助詞

例 띄어쓰지 않아. 잘이야.

【解說】 우리가 대체 토라고 생각하는것을 어떤이는 모두 씨(品詞)로 잡고, 어떤이는 그중의 한 部分인 곧 이름씨(名詞) 밑에 關係된것만 씨(品詞)로 잡는다. 그러나 自體가 獨立性이 없는것은 이름씨(名詞) 밑에것이나 풀이씨(說明語) 밑에것이나 다 一般이다. 조선말의

토란것은 말의 職能을 나타내는 語法的關係를 말함의므로, 關係된 그 웃말에 붙여 쓰는것이 正當한것이다.

第六二項 補助의 뜻을 가진 用言은 그 우에 用言에 붙여 쓴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먹어버린다 먹어 버린다  
잡아보다 잡아 보다  
전더내다 전더 내다

但 對立의 境遇에는 띄어 쓴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잡어 버리다 잡어버리다  
얼어보다 얼어 보다

【解說】 形式으로 보아서는 獨立한 풀이씨(用言)가 되나, 그 뜻으로는 그 웃 말의 뜻을 포우려고 붙여 쓰이는대야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렇것은 모두 關係된 웃 말에 붙여 쓴다.

第六三項 다음과 같은 말들은 웃 말에 붙여 적는다.

例 (1) 감바를. 할수가. 없는줄은. 될러이다. 가논이.  
(2) 하는대로. 될수있음은. 될수한. 하는체.

【解說】 「바, 수, 줄, 러, 이」의 말들을 形式으로 보아서는 名詞와 같이 되었으나, 獨立으로 쓰이는 뜻이 없고, 그 우에 있는 附加語에 붙어서 쓰이므로 大體 띄어 쓰지 못한다.

第六四項 命數辭는 그 웃 말에 붙여 쓰기로 한다.

例 한채 두자루 붓닷등 한개 네사람  
삼원 오십전 석자 한치 한그람

【解說】 不完全한 名詞는 例 홀로는 쓰이지 못하고, 數冠形詞가 붙어야 쓰인다.

第六五項 數를 우리글로 적을적에는 十進法

에 依하여 띄어 쓴다.

例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解說】 조선말의 數詞는 十進의 됨을 따라 새 이름이 생기었으니, 즉 열 스물 철흔... 아흔 들과 같은것이다. 이것을 보아도 十進法에 의지하여 單語를 잡는것이 옳다.

### 附錄 一 標準語

一, 무릇 어떠한 品詞를 勿論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以上 있음을 特別한 境遇에만 認定한다.

例 外 석 셋 (三)

【解說】 잘 서되. 배 석자. 우리 세사람.

二, 一定한 語根이나 語幹이 혹은 音이 脫落되고 혹은 韻 소리가 더하여 다른 品詞로 의어 버릴적에는 그 語根이나 語幹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나비(幅) 吳(東)

【解說】 나비는 넓이 變形語요, 「吳」인 음역씨(動詞) 「吳」(東)의 變形語다.

三, 用言이 活用할적에는 그 語幹의 끝 音節의 홀소리가 「나」나 「일」적에는 마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副詞形 語尾는 「아」로 過去時間辭는 「았」으로 定하고, 그 홀소리가 「나」 「았」으로만 定한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1) 甲

나아  
막아  
보아  
돌아

乙

나아  
막아  
보아  
돌아

나았다  
막았다  
보았다  
돌았다



(2)甲

주어	주었다	주어	주었다
피어	피었다	피어	피었다
개어	개었다	개어	개었다
배어	배었다	배어	배었다
되어	되었다	되어	되었다
쉬어	쉬었다	쉬어	쉬었다
의어	의었다	의어	의었다

【解說】 「나」는 「와」, 「그」 밖에 모든 홀

소리(母音)는 「와」와 調和가 되나나, 이것은 發音生理의 關係로 생긴 홀소리(母音)의 法則이다. 그리하여 소리를 내기가 便하고 들기가 順한 까닭이다.

「나」가 「나」는 「다」 혀앞이 높음 홀소리들이라, 「나」를 만날 때에 音便을 좇아 혀앞이 가장 높음 반홀소리(半母音) 「나」 소리가 조금 더 나서 「로」 조금 發音이 되는 듯 하나, 이것은 發音의 自然인즉, 綴字를 그렇게 하여 不統一을 일으킬 必要는 없다.

四、語幹의 끝 音節이 닿소리 「스」 「츠」의 바침으로 끝났을 때에는 語尾의 「나」 소리가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로」 統一한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甲 乙 甲 乙

갖은	갖으니	갖은	갖으니
꽃은	꽃이니	꽃은	꽃이니
곳은	곳이니	곳은	곳이니

【解說】 「가」 「스」 「츠」와 같이 혀끝소리이므로, 조금 音便이 있어서 「나」를 「나」 소리로 내기도 하나, 語法의 統一을 깨뜨리는 크게 不利한 點이 있다.

五、漢字語나 純朝鮮語나를 勿論하고 副詞의 끝 音節이 「이」나 「히」로 混同될적에

限하여 그 말이 語源的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수가 있는것은 「히」로 하고, 그러저아 나한것은 「이」로 한다.

例 히-심히 자연히 감히 심심히 텨텨히 이-헛되이 반가이

【解說】 「심히」, 「텨텨하다」와 같이 「하다」가 붙은것이다.

【附記一】 分明히 「이」나 「히」로만 「나」는것은 「나」는대로 적는다.

例 이-척이 히-죽히 작히

【附記二】 分明히 「히」나 「이」의 두가지가 다 있는것은 上記 規則에 맞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쪽의 말은 許容한다.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도 許容한다)

例甲 乙 甲 乙  
답답히 답답이 똑똑히 똑똑이  
六、「이오」는 接續形이나 終止形이나 全部「이오」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統一한다.

例 이오-이것은 북이요, 키것은 먹이요, 또 키것은 소요.

【解說】 接續形은 「이오」로, 終止形은 「이오」로 갈라 쓰는것이 語法上으로 좋다는 主張이 있었으나, 實際 發音이 같으니, 一般에게 語法的關係를 밝히어서 쓰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發音대로 한가지로만 쓰게 되었다. 「지요」는 흔히 「지오」로도 쓰므로, 語法과 發音이 다 맞은 「지오」로만 統一한것이다.

七、다음의 말은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하고 丙을 버린다.

例甲 乙 丙

삭이다	삭히다	삭히다
-----	-----	-----

시키다 시키다 식히다  
박히다(被動) 박히다  
박히다

【注意】 단순한 能動 「박히다」의 뜻으로 「박히다」 「박히다」 들을 씀은 認定하지 아니한다.

【解說】 말할 때에는 丙과 같이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글 쓸 때에는 반듯이 甲을 표준삼을 것이다.

八、다음의 말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甲만 取하고 그 밖의 말들은 다 버린다. (甲欄의 並記 括弧는 許容을 뜻하고, 下記 括弧는 註釋을 뜻한다)

甲 乙 甲 乙

가까스루	가까스로	(가)	거꾸로
가로(橫)	가로	거꾸루	거꾸루
가루(粉)	가로	거두다	거두다
가슴	가슴	(걸다)	
가로되	가르다	거든	거던
가만히	가마니	거우	거오
가운데	가운데	게시다	게시다
가진(各色)	가진	계집	계집
고루(均)	고로	너희	너희
고쳐	고자	다음	다음
골고루	골고로	(단)	
곳(處)	곳	더니	드니
구름	구름	더러	드러
나누다	노는다	더러도	드러도
(논다)		더러	드러
너무	너모	던	드
(넘어)		대(處)	대
데치다	뒹치다	대리고	대리고
도두	돌오	마커	마차
도리어	도로혀	마주	마조
되우(심히)	되오	마침(適)	마춤
든지지	던	만나다	만나다
러(보러가다)	라	매우	매우
려고라고		먼저	먼저
		몬저	몬저



마땅히	맞당이	먼지	몬지
마디	마디	머느리	머느리
마음	마암	며칠(幾日)	몇일
모두	모다	뼈(骨)	뼈
바늘	바늘	벗(犁)	벗
배우다	배호다	별(陽)	별
뻘	뻘	보리(麥)	버리
버선	보선	비다(空)	비다
뻘치다	뻘치다	비추다(他動)	비웃오
벗(友)	벗	비취다(被動)	빛이다
베다(枕)	비다	비치다(自動)	빛이다
베다(斬)	버히다	빗(梳)	살이다
베(布)	뵈	사되다	살이다
사슴	사심	삼다(植)	아래
차우다	차호다	(시므다)	아래
살갓(皮膚)	살갓	아래	아래
새로	새루	아르다	알외다
쇠다(立)	스다	아버지	아바지
셈기다(事)	셈기다	아직	아직
세로(縱)	세루	아침	아침
세우(植)	세오	어디	어디
소금	소곰	어머니	어머니
소쇠	소쇠	어찌	어찌
송곳(錐)	송곳	얼굴	얼굴
여덟	여덟	없다	없다
여우	여호	자주	자주
오줌	오날	자취	자취
오줌	오줌	커희저의復數	커희
오직	오죽	권혀	권혀
오허려	오이려	칠루	칠루
외다(誦)	외이다	종이(紙)	조히
위(上)	웅	취(醜)	취업
음니다	음니다	취음	취음
(음니다)		케	케
이루	이로	키(호이)	키
자루(柄)	자로	하루	하루
하늘	하날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 附錄二 文章符號

文章에 쓰는 重要한 符號는 大略 다음과 같  
이 定한다.

【解說】 글의 뜻을 分明히 하고, 讀書 能率을  
높이는데는, 文章 符號가 必要하다.

1. 文章의 끝난것을 나타낼적에 그 끝에 쓴다.  
例 한글은 가장 잘된 글이다.

2. 西洋의 同一 人名이나 地名 사이에 쓰기로 한다.  
例 가알·말스·센느·헨레나

3. 停止하는 자리를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例 (1)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느끼신다.  
(2) 달은 밝고, 기러기는 온다.

4. 大體로 對等的 말을 並列할적에 그 사  
이에 쓴다.  
例 (1) 때: 十月 二十九日.  
곳: 서울 水標町 四二番地.

5. 한 文章이 끝났으나 다음 文章과 意味  
上 連絡이 있는 境遇에 그 사이에 쓴다.  
例 (1) 儒敎의 三綱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신하의  
버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버리가 되고; 처  
아버지(사내)는 처(아내)의 버리가 된다.  
(2) 우리는 空中에 나는 새와 같이 自由롭게  
살겠다: 一生을 苦痛없이 이리저리 快樂하게  
거다나겠다.

6. 『』 引用을 나타낼적에 쓴다.  
例 속담에 이르기를 『부두막에 소금도 집어 넣  
어야 짜다.』

7. 「」 二重 引用을 나타낼적에 쓴다.  
例 孟子에 이르대 「孟子가 梁惠王을 보신대,

王이 가르사대 『몇가 千里를 멀리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셨으니, 또한 우리 나라에 이로움이  
있으리까?』 孟子가 대답하여 가르사대 『王은  
어찌 꼭 利만 말승하나이까: 또한 仁과 義  
가 있을 따름입니다.』

8. ! 感歎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例 거룩하신 世宗大王! 커 雄壯한 白頭山!

9. ? 疑問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例 오늘 학교에 가오?

10. || 單語의 中絶된것을 나타낼적에 쓴다.  
例 사 || 람 (다음 줄로 넘어갈적에)

11. — 「(即)의 意味로 쓴다.  
例 조선말이 된 漢字例 — 英雄 人心 故鄉 倫  
理學에 말한바 — 善惡은

12. | — 우의 말을 다시 解釋하고 넘어갈적  
에 쓴다.  
例 社會制度가 完全化할 때까지는 — 完全化한다  
는것은 一個의 妄想일지는 모르나 — 姑息의  
이나마 飢寒으로 우는 乞人에게 銅錢 한분이  
라도 주는 편이 낫지.

13. …… 말은 끝났고 뜻을 말 밖에 나타낼적에 쓴다  
例 그 가담은 묻지마시오…… 비……

14. 固有名詞를 表示하고자 할적에는 縱書에서는 左  
傍에 單線을 긋고, 橫書에서는 下線을 긋는다.  
例 平壤 李舜臣 李舜臣 하와이 檀香山

15. 疊用을 表示할적에는 筆記에 限하여 쓰되,  
縱書에는 々를 쓰고, 橫書에는 々를 쓰기로 한다.  
例 펄펄 뛰고 출렁거리는 浪은 구비구비 구비구비

16. 長音票는 두 點을 글자의 왼쪽에 찍되, 다만  
字典이나 聲音論 같은대에 聲音 符號로만 쓴다.  
例 發 發 鏡城(鏡城)

但 行文에서 長音 符號를 特別히 表示하지  
아니함을 原則으로 하고, 다만 外來語나 模倣語  
등을 特別히 表示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出  
소리를 거듭 쓴다.  
例 쇼오(人名)



### 後記

이번호는 「한글 맞춤법」 등의  
안 해설호로 하게 되는 관  
계로, 다른 여러가지의 글은  
다 다음호로 맡겼으니, 독자  
께서 특히 용서하시기 를  
바라나이다.

### 편집부사림

### ◆投稿歡迎

本誌는 讀者 여러분의  
原稿를 기다립니다. 여러  
분의 귀중한 의견을 이  
紙面을 통하여 발표하시  
기를 바랍니다.

-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에 관한 意見 發表.
- 一、感想文。 本誌나 혹은 다른 書籍을 읽고 感想된 것. 으로 本誌나 知友에게 편지하는 것.
- 一、研究資料。 地方 사투리, 傳來 童話 民謠, 傳說, 古談 等 其他.

### 廣告

本誌 今年 四月號부터  
十月號까지 殘品이 若干  
있사오니, 要用品이 되실 이  
는 곧 請求하시오. 특히 每  
冊 二割引 提供하나다.

朝鮮語學會出版部 白

●代金を 보내실 때는

京城府花洞 一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

京城壹〇參六番으로 하시오

### 한글 맞춤법등의인特輯

(한글 第一卷 第十號 特刊)

定價 十五錢

朝鮮語學會에서 往年 한글 맞춤법 등일안을 制定 發表한 것은 朝鮮 文化史上에 新記錄을 지은 것이다. 이 빛난事業을 永代에 保存하기 위하여, 이 案을 制定한 經過 事況과 統一案 全文과 이를 發表할 때의 記事 및 當時 一般 輿論을 蒐集하여 特輯을 發行한 것이니, 이것이 朝鮮語學史上 가장 貴중한 文獻이 될 것이다. 한글 맞춤법 등일안이 어떻게 생기었으며 社會에 어떠한 衝動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는 꼭 한번 보기를 바란다.

### 周時經先生遺稿

定價 一圓

한글 研究의 開祖 周時經 先生의 遺著 國語文法音學, 國語文法, 말의 소리를 合本한 것이니, 先生의 面影을 이 책 하나로써 볼수 있다.

### 한글歷代文選

定價 一圓

訓民正音 以後 現今까지 重要한 文獻을 特選한 것으로, 우리 語文 研究에 不可缺할 寶典이다.

發賣 朝鮮語學會出版部

### 한글 맞춤법등의인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半千年 以來 整理 못되었던 우리글을 朝鮮語學會의 손에 빌어 비로소 맞춤법(綴字法)이 完成되었다. 全 民族이 統一하게 쓸 표준글은 반듯이 이것에 말미암을 것이다.

### 訓民正音原本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四百 八十八年前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을 頒布하시던 그 原本을 寫眞銅版으로 縮刷한 것이다. 우리글의 근본을 알고자 하는 이로는 아니 보면 안된다.

### 崔鉉培先生 著

### 중등조선말본

菊判 二百頁  
紙質 堅厚  
布美 本

定價 八十錢・送料 六錢

- ◆標準朝鮮語文法인제出現
- ◆最良의 朝鮮語文法教科書
- ◆朝鮮語研究의 基礎知識書
- ◆著者數十年 專心 研究 要領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등일안」을 基準한 文法이다. 무릇 朝鮮語에 뜻 있는 이는 누구든지 배우라 읽으라.

### ◎注文은 朝鮮語學會出版部로

京城花洞 一二九番地

振替京城壹〇參六番

### 社告

支社를 아래와 같이 新設 하오니, 該地 讀者 諸氏는 各 이 사랑하여 주소서.

- 一、名 稱 漢言鎮南浦支社
- 一、區域 鎮南浦一團
- 一、所在地 鎮南浦三和町
- 一、任 員 支社長 姜 焄

總務 朴苦京

### 價定

一部	五錢	代金은 받듯이
六個月	三十錢	先金을
一箇年	五十五錢	要함.

昭和九年九月三十日 印刷  
昭和九年十一月一日 發行

【本號限 定價十錢】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京城府花洞 一二九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 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 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 三二番地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 大好评・再版